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어느 봄날의 일기

별것 아닌 것들의 소소한 행복이 나를 기쁘게 하고 들뜨게 한다. 노랑나비가 여린 날갯짓으로 양지바른 담장에 기대어 졸고 있는 나에게 다가온다. 천지창조의 비밀이 노랑나비의 출현으로 풀리고 있다.

따스한 햇살을 빨아들이며 매화나무 가지에서는 꽃망울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톱과 망치로 작업하다 엄지손톱 깊이 나무가시가 하나 박혔는데 쓰리고 아프다. 봄볕은 돌아가신 어머님만 그리운 게 아닌가보다. 미안했던 일, 고맙고 감사했던 얼굴도 아지랑이 속에서 피어오른다.

산이 쩡쩡 울릴 만큼 바위벽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여전(旅錢) 한 닢 마련 없이도 어디론지 떠나고 싶다. 남은 미역국에 밥 말아 먹으니 세상이 배안에 담겨 부족함 없이 행복하다.

누군가 법당의 부처님 앞에 사과 한 알을 놓고 가 그 사과로 후식까지 즐기고 있으니 이만하면 산골 늙은이의 화려한 점심을 마친 셈이다.

오전에는 수원에서 왔다는 어떤 할머니가 정다운 스님을 찾아 사자암엘 다녀갔다. 사주 관상의 권위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자칭 도사 할머니는 글쎄 정다운이 사자암에 없는 것은 예견하지 못함인지 헛걸음을 한 셈이다.

익산에 산다는 어느 할머니는 전화기 속에서 '징 징 징' 울고 있다. 딸이 시집간 후 간암 말기로 판정을 받아 사위와 이혼하고 딸아이 하나 기르다가 작년 이맘때 세상을 떠났다는 것, 본인도 국가에서 매달 지급되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딸의 49재도 치르지 못했다는 것, '가난이 원수'라며 죽은 딸이 꿈에 자주 나타나니 천도재를 지내고 싶다는 것, 그런데 돈이 없으니 어쩌면 좋겠냐며 울먹이고 있는 것.

나도 울먹이며 말하였다. 그럼 그 죽은 딸의 어린 딸은 누구랑 살고 있느냐고. 초등학교 2학년인 손녀딸은 외할머니와 함께 지낸다는 것.

하여, 동정이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 천도재 날짜를 알려 주었고 손녀딸에게도 사자암 운영회에서 용돈을 마련해 주겠다며 배3개, 사과3개만 준비하고 다른 일체 준비물이나 비용은 사자암의 운영회에서 기꺼이 책임질 터이니 빈손으로 오시라며 마음을 덮혀 드렸던 것, 사자암에는 49재나 천도재가 가뭄에 콩 나듯 1년에 서너 차례 있게 된다. 내용은 다르긴 하나 대개는 사연있는 자들의 희망에 의해 이루어진다. 당연히 경제부담 없고 목탁 울리는 시간이 10분 안팎이다.

목탁 염불소리로 귀신 오지 않는다며 죽은 자를 위함보다는 산자를 위한 종교의례임을 미리 밝혀둔다. 사자암에서 14년을 머물고 있지만 신도들에게 권선문 한차례 내민 적 없고 대학입시 합격기도 한번 치룬바 없다.

목마를 때는 자신이 물 마셔야 목마름이 가시고 오줌 마려울 때도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와야 개운한 이치를 여러 차례 설명해 사자암 신도들은 자기 불공은 자기가 법당에서 절하며 염불하며 축원까지 하고 있다.

주지도 바쁘다. 사자암에는 공양주가 없어 세끼니 식사담당은 주지 몫이다. 풀 뽑고 마당 쓸며 도량의 허드렛일도 머슴처럼 부지런히 일 잘하는 주지 담당이다. 거기다가 주말이면 찾아드는 다양한 방문객과 인생 상담, 신앙상담 등 대화자가 되어야하고 이웃처럼 친구처럼 편한 대화를 해야 한다. 산이 텅텅 비어있는 날엔 사자암 주지는 빨래나 바느질을 즐긴다. 늙디 늙은 할배이지만 시력과 청력이 정상이다. 사자암에는 주지 도반이 많은데 진돗개 2마리 고양이 13마리가 좋은 스승이자 착한 벗이다.

할 일 없는 늙은이로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살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다. 조건 없이 행복하다. 개운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글쎄,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꾸미거나 드러냄 없이 감추거나 속이는 일 없이 바람 부는 대로 꽃잎 지는 대로 순리에 순응하며 자연인으로 살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자암 주지 향봉이는 복이 골고루 넘칠 만큼 행복한 스님이다.

생활이 가난하나 불편하지 않고 바람이 없으므로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없다. 울고 싶을 때는 잔잔히 울고 기분 좋은 날은 유행가도 부른다. 넘침과 부족함 없이 날마다 좋은날의 평화, 행복, 자유 누리는 오늘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 〈끝〉

있는 듯 없는 듯 살지만 마음 편하다
곰곰이 생각하면 난 행복한 스님이다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불교의 모든 설법을 방편설이라고 말한다. 쉽게 말하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적당한 말을 해 줘 듣는 이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를 높여 주는 방법을 쓰는 것을 말한다. 교(敎)에서는 이를 수기설법(隨機說法)이라 하여 권교법문(權敎法門)이라 말하기도 한다.

격외담(格外談)을 주로 하는 선(禪)에서도 고차원적인 방편설이 있다. 가령 〈임제록〉에 나오는 말 가운데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는 살불살조(殺佛殺祖)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교조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역부도(大逆不道)한 말이다. 그러나 불교는, 특히 선은 교조주의가 아니다. 어떤 도그마도 없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부처님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석가모니도 '나를 따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방망이로 학인을 곧잘 때렸던 방(棒)으로 유명한 덕산선감(德山宣鑑:782~865)의 '부처는 없다'는 뜻으로 나온 '불야(佛也)' 공안이 있다.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한다(呵佛罵祖)'는 덕산 특유의 선풍에서 나온 말이다.

〈선문염송설화〉 676칙에 덕산이 대중에게 설법하는 장면이 있다. 덕산이 말한다.

"나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달마는 비린내나는 오랑캐요, 10지 보살은 똥 푸는 사람이요, 등각, 묘각 두 보살은 파계한 범부다. 보리와 열반은 나귀 매는 말뚝이요, 12분교(分敎)는 귀신이 고름 닦는 휴지다. 사과(四果)와 삼현(三賢)과 초심(初心)과 10지(十地)는 옛 무덤을 지키는 귀신이다. 그래 가지고 자신인들 구제하겠는가? 부처란 늙은 오랑캐의 똥막대기니라."

무슨 법문이 이런가? 말 그대로라면 분명히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한 마설(魔說) 같은 말이다. 이에 대해 운문문언(雲門文偃:?~949)이 언급한 말이 이어나온다.

"부처를 찬양하고 조사를 찬양하는 데는 반드시 덕산 노인이라야 되느니라." 부처와 조사를 찬양해서 한 말이라는 것이다. 덕산 정도 되어야 부처와 조사를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낭야혜각(瑯琊慧覺)은 평하기를 "여러분이 만약 이와 같이 말한다면 지옥에 쏜살 같이 들어갈 것이다. 운문이 이렇게 말했더라도 또한 쏜살 같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설화〉에는 "이 화두는 높은 산봉우리 꼭대기에서 바른 법령(法令)을 전부 들어 보이는 것이니 이것이 부처를 찬양하고 조사를 찬양하는 것이다. 처음에 10지를 통틀어 들었고 나중에는 초심자를 이른 말이다. 낭야의 평에서 '지옥으로 쏜살같이 들어간다' 한 것은 부처님과 조사를 비방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업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뜻이다.

장산찬원(蔣山贊元)이 법좌에 올라 이 화두를 가지고 말했다.

"그대들은 보라! 덕산이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매도하며 최상승법(最上乘法)을 해치다가 곧바로 발설지옥(拔舌地獄)으로 들어가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느니라. 설령 삼세의 부처님이라도 그의 죄를 면하게 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저 덕산을 구해 줄 사람은 없는가? 있다면 크게 신통을 즐기는 대로 놓아 둘 것이며, 만약 없다면 내가 눈과 귀와 코가 없는 한 사람을 보내어 그의 목숨을 구해 주도록 하겠다."

부처가 되려면 부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매우 역설적인 말이 있다. 어떤 관념에 빠져 그 생각을 앞세워 무엇을 하려는 것은 세속적인 일일 뿐이요 출세간법은 아니다. 출격장부(出格丈夫)의 기상은 부처나 조사에 매이지 않는다고 한다. "장부에게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뜻이 있으니 여래가 간 곳을 향해 가지 말지어다.(丈夫自有衝天志, 莫向如來行處行)"라고 한 말도 있다. 무착문희(無着文喜:8821~900)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하는 원(願)을 가지고 오대산에 가 공양주를 하다가 죽 끓이는 솥 위에서 문수보살을 만났다 한다. 감격을 하여 희열이 넘칠 일인데 무착이 주걱으로 문수를 때리면서 "문수는 문수이고 무착은 무착일 뿐이다."라고 말했다는 〈오등회원(五燈會元)〉에 전해지는 설화가 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무슨 상관 있느냐는 말로 부처나 조사라 하더라도 나와 동격이라 나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끝〉

善業 공덕으로 온 중생 부처 지혜 얻길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㉔ 가장 수승한 발원

제바라 보살이 지은 〈대장부론〉의 마지막 회는 28품 '동등발원품(等同發願品)'과 29품 '승발원품(勝發願品)'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면 관계상 다 소개를 못하고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대장부론〉 가운데 감동을 줄 만한 명문이 있으나 독자들께서 직접 찾아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먼저, 〈대장부론〉의 두 품을 간략히 소개하기 앞서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타난 대장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어진이여, 대장부란 이와 같이 부지런히 종종 방편을 구하여 응당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를 서원하며, 발보리심을 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청정행을 일찍이 그치지 않으며, 대승의 도를 구하되 일찍이 게으르지 않으며, 일체 큰 법구름과 비를 지녀 항상 부지런히 도를 돕는 법을 쌓고, 원만하게 일체의 선한 멍에를 버리지 않으며, 늘 일체 청정한 법문을 즐거워하며, 보살행을 닦으며, 용맹하게 전진하며, 생각생각 부지런히 구하며, 생사를 벗어나 행하며, 큰 서원을 만족하게 이루며, 선지식 뵙는 것을 싫어하여 만족하지 않으며, 선지식 섬김에 몸이 피곤하거나 게으르지 않으며, 선지식의 가르침을 들어 항상 생각하고 따라 행하며 일찍이 거역하지 않느니라.(諸仁者! 此大丈夫如是勤求種種方便, 誓當救護一切衆生, 發菩提心相續不斷, 於淸淨行未曾休息, 求大乘道曾無懈倦, 受持一切大法雲雨, 恒勤積集助道之法, 圓滿一切不捨善 } 常樂一切淸淨法門, 修菩薩行, 勇猛精進, 念念勤求, 無有退轉, 出生諸行, 成滿大願, 見善知識情無厭足, 事善知識身不疲懈, 聞善知識所有敎誨, 常思順行, 未曾違逆。)'

〈대장부론〉 마지막 28품과 29품에 나타난 발원도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타난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대장부란 결국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원력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장부는 자신의 출가도, 수행도, 심지어 삶의 목적도 모두 중생구제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다. 희생이 즐거워서 남이 즐거우면 즐겁고, 남이 배부르면 따라 내 배도 부르고, 남의 괴로움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마치 9대 독자를 대하는 어미 아비의 마음처럼 간절하다. 결국 제바라 보살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보현행이 나닐까 생각한다. 화엄경에서 그토록 말하고자 했던 중심 내용도 결국 보현행이었으니 말이다. 모든 보살이 보현행을 구족할 때 비로소 부처의 지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화엄의 중심사상이니 말이다.

28품인 '동등발원품(等同發願品)'은 '등정각인 부처님과 같은 발원'이며, 29품인 '승발원품(勝發願品)'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수승한 발원'을 담은 내용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승발원품(勝發願品)'에 나타난 제바라 보살의 발원을 소개하면서 〈대장부론〉의 마지막 회를 장식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모두의 발원이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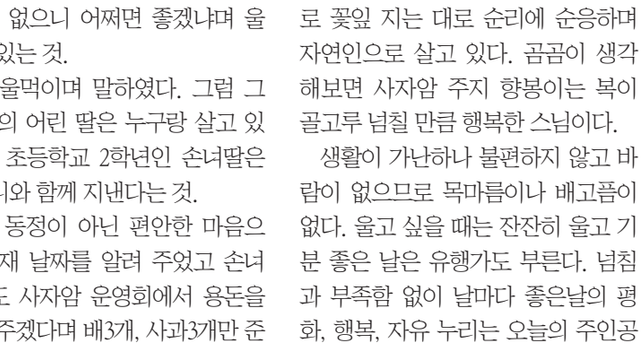
'만약 내가 한 중생에게라도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 이익과 즐거움을 줄 때에는 대비심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자비로써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되 일체 중생의 괴로움이 모두 나에게 닥쳐오게 하소서. 나의 지금 이 두려움 없는 보시의 복으로써 일체 중생이 모두가 대비를 얻게 하소서.(若我於一衆生起於悲心與利樂時。願使大悲堅固。以悲滅衆生苦。使一切衆生苦皆來逼我。我今以此無畏施福。使一切衆生皆得大悲。)'

'내가 생사 속에서 왕래한 인연의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내가 착한 마음을 일으킨 공덕의 인연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의 지혜를 얻게 하소서.(以我於生死中往返因緣功德。使一切衆生皆得作佛。以我發善心功德因緣。使一切衆生皆得佛智。)' 〈끝〉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